

할렐루야!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김성수, 정시애 선교사가 인사드립니다.

남반구의 볼리비아는 현재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볼리비아의 겨울은 사실 매우 혹독합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서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막내 동희와 제가 먼저 고생했고 이제 정시애 선교사와 다른 두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춥고 습한 볼리비아의 겨울을 잘 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5월 27일은 볼리비아의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며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지호, 이슬이, 동희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머니 날을 맞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잔치를 방송국에서 촬영해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목회하는 페를라 프레시오사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일을 맞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학교 친구들과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이 날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어머니들이 앞으로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담임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 페를라 프레시오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쇠퇴하고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초등부 예배에 집중했던 교회가 이제는 중·고등부와 청년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 찬양팀도 찬송가팀과 복음성가팀으로 나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팀, 전도팀, 기도팀 등도 만들어 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주역은 올해 초에 안수를 받은 신임 집사님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집사님들의 잔이 넘쳐 교회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페를라 프레시오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부흥이 페를라 프레시오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볼리비아 선교부 산하의 모든 교회에 미치기를 기도해주세요.



선교편지를 쓰는 중에 제가 독감에 걸려 며칠 고생했습니다. 오한과 두통, 몸살로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약과 주사를 사와 집에서 놔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독감에 걸린 4살짜리 막내 아들은 아직도 심한 발열과 복통, 구토와 기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오늘 저녁부터 목이 아프다고 하고 첫째 아들도 미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볼리비아에 독감이 유행입니다. 저와 막내 아들이 독감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저희가 사역중인 페를라 프레시오사 교회가 각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에 방해가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3. 볼리비아 오지에 있는 센다세이스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 밑에 교육관 건축을 하시고 마지막 타일공사가 남았다고 합니다. 타일 공사를 위해 미화 1,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4. 여러분의 기도로 감사하게도 2개월간 밀렸던 선교센터의 전기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센터 운영비 매달 미화 800달러 모금을 위해 기도해주세요.